

‘광주형 에너지 전환마을’ 자립방안 마련한다

오늘 에너지파크서 두번째 포럼 정책진단·평가, 개선방안 등 토론 시민들 자발적 실천 참여 강조

기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지역민의 자발적 실천과 참여를 강조하는 ‘광주형 에너지전환마을’의 진행 현황을 알리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 돼 현재 광주의 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10개의 ‘광주형 에너지전환마을’이 올해 2기를 맞아 일정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매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 자립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주최·주관하는 ‘2022 광주에너지전환 포럼-에너지전환마을의 두번째 포럼’이 19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광주에너지파크 해담마루에서 열린다.

지난 4월부터 매월 진행중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지역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학습의 장으로 전문가와 지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단과 평가를 시행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광주시가 목표로 내세운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도시’를 실현하고자 마을이라는 거점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연료를 탈피해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전환 운동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자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광주 에너지전환마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광주지역 5개 마을이 에너지전환마을 1기로 선정됐고, 올해도 5개의 마을이 2기로 선정돼 각 구별로 2개의 마을씩 총 10개 마을이 광주 에너지전환 마을로 운영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이윤기 ‘첨단해가 빛 에너지전환마을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시민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전환마을’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광주 에너지전환마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 위원장은 1기 에너지전환마을의 특성화사업과 주요사업의 전개양상으로 마을별 특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의 역량, 지역적 환경, 주요 관심사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원에너지전환마을은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적 환경을 전라화해 ‘마을 에너지 효율 연구’를, 첨단에너지전환마을은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많고 첨단1·2동으로 구축돼 있는 지역적 환경을 전라화해 ‘권역별 활동거점 운영’을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에너지전환마을은 인권마을운동과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마을의 역량을 ‘에너지전환교육 활동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했고 양림에너지전환마을과 일곡에너지전환마을은 광주의 대표적 관광명소이자 지역주민들의 자랑인 양림마을과 한새봉이란 지역적 환경, 그리고 이를 잘 가꾸고 키워가고자 하는 주민들의 관심을 전라화해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의 발전과제로 ▲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다양한 자립방안 마련 ▲광주 에너지전환마을 네트워크 결성 등을 들었다.

특히 에너지전환마을 사업은 4년간 예산을 지원하고 5년이 되는 해부터 자립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년 예산이 절반씩 감소하고 있어 3차년도부터 자립모델을 만들지 않고서는 상근활동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마을의 에너지경제 확립을 통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협동조합의 태양광 부지 확보 지원방안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제안이다.

정은진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의 공동대표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을 위해 광주시 공동체는 시민, 기업, 행정이 에너지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시민참여 모델을 확립하고 나아가 방향을 함께 모색해 지속가능한 방안을 이번 포럼에서 다시 세우는 좋은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영·호남 장애인 화합한마당’ 25일 남구 진월복합운동장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을 연다.

광주시 남구장애인연합회는 오는 25일 오전 광주시 남구 진월복합운동장에서 ‘영·호남 화합한마당 교류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없애고 장애인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호남에서 300여명, 영남에서 100여명이 참여한다.

오전에는 기념패 수여 등에 이어 장애인들이 준비한 축하공연과 노래자랑이 펼쳐진다. 오후에는 영남지역 참여자들과 함께 ‘국립 광주박물관’을 견학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무리 된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행사는 지난 2000년부터 ‘대구 지체 장애인협회 남구지회’와 격년제로 행사를 개최해왔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지난 2019년부터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3년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남구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장애인분들에게 3년간 행사를 선물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는데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서 너무 기쁘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값진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관계자도 “교류가 없는 영남과 호남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섬진강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해야

복원 증식 후 방사한 황새 ‘온새로미’ 관찰 하류습지 지정 필요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섬진강을 찾아와 먹이 활동을 하는 장면이 목격돼 섬진강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황새모니터링네트워크는 지난달 23일 섬진강 하류에 황새(천연기념물 199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가 처음으로 찾아왔다고 18일 밝혔다. 이 황새는 2014년 복원 증식 후 지난달 2일 예산황새공원에서 방사한 암컷 개체로 다리에 B 41 가락지를 달고 있으며, 이름은 ‘온새로미’로 확인됐다. 온새미로는 섬진강 소하천습지, 풀둑과 방죽 주변, 솔숲과 대숲 등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과거 황새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1990년대 밀렵과 환경파괴 등의 영향으로 자취를 거의 감췄다.

황새복원사업을 통해 지난 2015년 예산군에서 황새 방사를 시작했고, 현재 전국에 100여 마리가 야생에서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 네트워크 관계자의 설명이다.

단체는 섬진강 하류 하천습지 일대는 자연 생태경관이 뛰어나고 생물 다양성이 높아 조류를 기준으로 15종의 천연기념물과 21종의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고 최근 황새까지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탄소배출 감축 위해 다회용 컵 사용하세요”

동구청에 ‘다회용 컵 회수로봇’ 설치...커피전문점 10곳 협업가게 지정

광주시 동구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동구는 지난 12일 청사 본관 1층에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다회용 컵 회수로봇(1600만 원 상당)’을 설치했다. 회수 로봇은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 청년 AI 기업 ㈜디투리소스로부터 기증받았다. <사진>

동구는 지난 17일부터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위해 청사 주변 커피전문점 10개소를 협업가게로 지정했다. 해당 가게에서 직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테이크아웃 주문 시 일회용 컵 대신 동구에서 제공

한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준다.

사용한 다회용 컵은 청사 본관 1층에 마련된 ‘다회용 컵 회수로봇’에 반납하면 세척 전문업체가 매일 수거해 세척·살균 처리한 후 협업 가게에 배송해 재사용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우리 동구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 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탄소중립 선도 동구’ 조성을 위해 주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자원순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YWCA 창립 100주년 22일, 고려인 돕기 걷기대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많은 고려인들이 광주로 이주하고 있는 가운데 고려인을 돕기 위한 평화걷기대회가 개최된다.

광주YWCA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돕기 평화걷기대회’를 오는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걷기대회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고려인 동포의 실질적인 위환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걷기대회는 22일 오전 10시에 광주공원 앞 광주교에 출발해 광주 전변로를 따라 남광주교가 밑에서 다시 광주교로 돌아오는 5km의 코스로 구성됐다.

대회 참여 희망자는 광주YWCA에 전화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행사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광주교에 모여 등록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선착순 500명을 모집하는데 청소년은 참가비가 무료지만 성인 5000원을 내야 한다. 모금 액은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을 후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